

인터넷 역사 왜곡·지역 비하 표현 폭발적 증가

2011년 4건서 2013년 622건으로 150배 늘어

장병완 의원 “특정 사이트 유해매체 지정 해야”

2012년 이후 인터넷에서 역사 왜곡, 지역 비하 등 차별과 비하 관련 표현이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새정치연합·광주 남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 2011년 총 4건에서 2013년 622건으로 15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 9월 기준만으로도 시정요구가 643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차별·비하 건수는 ▲2010년 24건 ▲2011년 4건 ▲2012년 149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3년 622건 ▲2014년 643건(9월 기준)으로 규모가 급증했다.

실제 차별·비하 사례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했다. 장 의원은 “일제시대 위안부를 모독하거나

5·18 민중항쟁을 화려한 사기극이라 비하하는 등의 역사왜곡 사례부터 ‘X라디안’, ‘X쌍도’ 등 지역 비하 사례 등 정상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이라면 차마 언급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대부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간베스트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서 단순 시정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청소년이 차별·비하와 같은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0년 이후 연도별 차별·비하 항목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10.1.1~2014.9.30. 단위: 건)

연도	시정요구			
	계	삭제	이용해지	접속차단
2010	24	24	-	-
2011	4	3	1	-
2012	149	135	10	4
2013	622	575	20	27
2014	643	509	2	132
계	1,442	1,246	33	163

300만원 이상 수령 ‘고액’ 공무원 연금 2년만에 2만명 늘어

공직 은퇴 후 매달 300만원 이상을 타는 ‘고액’ 연금 수령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수령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매월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아가는 수급자는 7만5036명이다. 이는 8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연금 수급자 33만8450명 중 22.2%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30만6582명 가운데 18.4%인 5만6205명이었다. 1년 8개월 만에 ‘연금 부자’ 퇴직 공무원이 1만9000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이런 속도라면 연말까지 300만원 이상을 받아가는 퇴직 공무원의 수는 7만9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12년 말 859명에서 올해 8월 말 현재 2326명으로 20개월 만에 170% 증가했다. 반면 200만원 미만 수급자는 이 기간 43.2%에서 37.9%로 비율이 감소했다. 100만원 미만을 타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지난 2년간 6.5~6.6%를 유지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수급액은 168만원이었다.

조원진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과거 ‘고급’ 구조로 설계된 공무원연금의 수혜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과 국민이 머리를 맞대고 고액 수급자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충장동주민센터 건립

교부세 7억 지원 확정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지난 10일 광주시 동구에 있는 충장동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지원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충장동주민센터는 광주 구도심 금융·쇼핑의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방문 민원도 많지만 독립된 청사 없이 20여개 사무실과 점포가 입주한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1971년 건립된 낡은 건물 탓에 장애인 편의시설과 주차장이 없어 민원도 잦았다.

박 의원은 지난달 안전행정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요청했으며 교부세 지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내년 9월로 예정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이후에는 더 많은 민원인이 찾게 될 주민센터가 시설이 열악해 안타까웠다”며 “충장동과 금남로를 찾게 될 국내·외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광주 여행 정보도 제공하는 종합 민원센터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북전단 띄우는 탈북자 단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풍선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사진을 매달고 있다. / 연합뉴스

남북한 2차 고위급회담 무산되나

北, 대북전단 연일 비난

정부 “이미 합의 사안”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고사총 발포 등으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정된 남북한 2차 고위급 회담이 애초대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부는 12일 북한이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2차 남북 고위급 접촉 무산 가능성을 거듭 경고한 것에 대해 “2차 고위급 접촉은 이미 합의한 사안이기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의 입장은 2차 고위급 접촉 합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10일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 고사총을 발포해 우리 민간인 지역에 총탄이 떨어지는 도발을 일으킨 데 이어 노동신문 등을 통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차 고위급 접촉 날짜 제안 시점이나 방식과 관련, “실무협의를 할지 문서 교환을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일정이나 의제 부분을 검토해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전단

문제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만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과거에도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문제가 있으면 필요시 안전 조치를 해왔고 앞으로 그런 입장이 적용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고사총 도발로 이어지고 연천 등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비등한 점을 근거로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경찰은 실제로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 단장’인 이민복씨가 연천과 포천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려는 것을 11일 제지하고 나섰다. / 연합뉴스

대한민국 휴대폰 가격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우리나라 휴대폰 가격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제조사들이 저가형 보급폰보다 고가 위주의 스마트폰만 만들기 때문으로 단말기 라인업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아 12일 배포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리미엄폰 평균공급가는 512.2달러(2013년 기준, USD)로서 세계 최고가를 기록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55만원 가량이다. 이어 미국이 505.4달러, 폴란드는 500.2달러 순으로 비쌌다. ‘프리미엄폰’은 음성, 문자와 함께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한 단말기로 ‘스마트폰’을 의미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베이직폰(음성·문자만 가능한 피쳐폰) 또한 한국이 230.6달러로 가장 비싸고 일본 200.7달러, 핀란드 119.1달러 순이었다.

방통위는 세계적 시장조사전문업체인 ‘가트너’가 발표한 국가별 단말기 평균가격 비교 자료를 인용했다.

이개호 의원이 별도로 추가 입수한 가트너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홍콩 624.6달러 ▲한국 512.2달러 ▲미국 505.4달러 ▲폴란드 500.2달러 ▲멕시코 492.2달러 ▲타이완 484.1달러 순이었다. 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 스마트폰 가격이 제일 비쌌다.

최근 3년간 가격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은 2011년 411달러로 4위, 2012년 493달러로 5위였다가 지난해 512.2달러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OECD회원국 중 세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해외 대비 과도하게 높은 국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단말기 라인업을 다양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제9회 광주전기인체육대회

범 전기계의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제9회 광주전기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오니 화합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 10. 18(토) 오전 10시

| 장소 | OB맥주 광주공장 운동장 (북구 일곡동)

| 주 관 |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 주 최 |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교육청

한국전력공사광주전남지역본부

내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광주광역시전남도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광역시회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51 ☎ (062)352-1044 Fax. (062)352-1042

회 장 문유근

중 앙 회 이사 김기수

부회장 김종철

전기신문 이사 이기엽

한국전기산업연구원 이사 박원찬

